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NEWSLETTER

# 소리통

## MEMORIE

### 200일의 기다림

오는 11월1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 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9명은 차가운 바다속에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명확한 원인조차 파악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를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세우는 무리에 분노합니다. 지치는 손을 서로 잡아줍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인의협 소식

#### [인의협 토론회]

일시:2014년 10월29일(수)오후8시  
장소:서울의대의과학관5층 대회의실  
주제:에볼라 관련 의료진 파견, 어떻게 볼 것인가?

####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

일시:2014년 11월1일(토) 오후4시  
장소:청계광장

### 이 달의 사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달의 사진은 인의협 문화제 때 찍은 박태훈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 인의협, 역사 문화와 호흡하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에 걸쳐 2014 인의협 가을 문화제가 '인의협, 역사 문화와 호흡하다' 라는 주제로 공주한옥마을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기세춘 선생님의 동양철학 강의와 다음날 엄석호 선생님이 진행해주신 공주 문화유산 산책으로 구성된 이번 문화제는 참가 회원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인의협 카페(<http://cafe.naver.com/humanmed>)을 참고하세요.



## 논평

---

[논평] 삼성전자는 반올림 배제 시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성명] 국민들은 기업과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건보공단을 원한다

## 보건의료뉴스

---

[쿠키뉴스] 국회로 옮겨간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

[청년의사] ‘싼얼’로 시작해 ‘담뱃값’으로 끝난 복지부 국감 첫날

[YTN] "담뱃값 올려 원격의료 사업 투입 추진"

[라포르시안] “건보공단, 4개월간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에 5700만원 지출”

[머니투데이] '헬스커넥트 논란' 서울대병원이 의료민영화 전초기지?

[한겨레] 원격의료 환자, 장비값만 35만~37만원

## 언론과 인의협

---

[헬스코리아] 군 의료체계 걸은 ‘번지르~’

[뉴스앤조이] 자기보다 남 걱정 앞서는 두 '바보' 목사

[오마이뉴스] 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한겨레] 가난한 사람 살리는 ‘담뱃값 인상’ 돼야

## 칼럼

### 담배세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허구 -담배 권하는 기업, 비싼 담배 권하는 정부-

대전충남지회 송관욱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신경이 쓰인다.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아이의 가방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새로 출시된 과자인줄 알았다. 따뜻한 오렌지색과 상쾌한 파란색의 투톤 디자인이 젤리과자의 새콤달콤한 맛을 연상시키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곧 파란바탕에 쓰여 있는 깨알 같은 경고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단지 색다른 디자인의 담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년을 애연가로 살아온 내게 담배는 애증의 물건이다. 젊어서는 자욱한 담배연기를 벗 삼아 철학을 논하고 부조리에 분노하며 혁명을 꿈꿨고, 군대에서는 '담배 일발 장전'의 구호에 맞춰 한숨을 토해내었다. 직행버스 뒷좌석이 흡연석이고, 항공기 좌석도 흡연석을 선택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회갑이 되시던 해에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해방 이후 지지리도 가난했던 시절, 모내기할 때 쓰는 모판을 닦은 납작한 상자에 담배와 껌 따위를 담아 파는 모판장사를 하시면서 10대 초반에 배우게 된 담배는 50년 만에 아버지를 무너트렸다. 혼자되신 어머니는 금연을 간곡히 권유하였으나, 호심이 부족했던 탓인지 나는 작심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피우는 습관만 들이고 말았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은 담배 냄새를 무척 싫어했는데, 담배를 끊은 아빠의 친구가 존경스럽더라는 아들의 한마디에 결국 30년간의 애연가 생활을 마감했으니,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옛말이 맞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딱 1년 반 이었다.

아들은 고등학교 야구선수다. 어린 시절 댄스가수를 꿈꾸기도 했고, 한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며 밤낮으로 피아노에 매달린 적도 있었지만, 결국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며 리틀 야구단을 거쳐 중학교 야구부로 진학했고, 지금은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운동한다. 그날 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고. 아들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했다. 요즘 운동이 너무 힘들고 노력한 만큼 실력이 늘지도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무엇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생각하다가 몇 주 전부터 담배를 피우게 됐단다. 자기는 아빠의 기대만큼 착하지도 성실하지도 않고, 운동하는 것 보다 노는 것이 더 좋으며, 이제는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렸다고 울먹이며 고백하는 것이었다. 네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나이 때는 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줬다. 다만 휴식이 즐거운 이유는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이고, 매일 놀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휴식이 즐겁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아직 성장기이니 담배만큼은 안 된다고 단호히 얘기해줬다.

내가 대학생이었던 30년 전에는 자장면이 500원, 고급담배였던 '솔'담배 한갑도 500원, 시내버스 요금이 120원이었다. 요즘 시세와 비교한다면 대략 자장면이 8배, 담뱃값이 5배, 시내버스요금은 10배 올랐다. 참고로 쌀값은 3배가량 올랐다고 한다.

담배세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서민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특히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작 흡연율 감소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며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서민경제만 힘들어 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룰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부는 담배세를 통한 세수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들이 샀던 담배의 맛은 달콤했다. 초코향도 나고 오렌지향도 났다. 연기를 빨아들이면 입안에 달콤한



기운이 퍼졌다. 담배 갑에 적혀있는 안내문을 따라 필터 끝부분을 눌러 캡슐을 터트려보니 화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졌다. 개인적으로 박하담배를 싫어하지만, 처음 담배를 접하는 사람에게 담배의 역한 맛을 감추기에 이보다 좋은 첨가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고 간접흡연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이다.

진정 담배가 건강에 나쁘고 흡연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유해물질이라면, 금연법을 제정하여 담배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켜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에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흡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금연율은 100%에 육박할 것이 자명하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담배 갑 디자인이라도 규제해야 한다. 여성과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첫 담배에 대한 거부감마저 희석시킬 기술로 무장한 담배회사의 공세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어찌 이겨내라는 말인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그 밖의 수많은 유해물질

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치약에 암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물질이 극소량 함유되어있다고 국감장이 떠들썩해지는 시대에,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왜 못하는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왜 안하는가.

미국에서는 폐암에 걸린 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 대의 소송을 걸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폐암에 걸린다 해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은 없다. 담배의 유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 금연을 하지 못한 내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면 생각을 고쳐먹게 될지도 모르겠다. 소송의 대상은 담배회사에 국한될 수 없다. 잘못된 금연정책과 세수정책으로 담배 권하는 회사를 존속시키고, 나아가 비싼 담배 권하는 사회경제를 창조하려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사족으로, 걱정하시는 지인들을 위해 아들의 근황을 전한다면, 지금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며, 야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려 노력 중이다. 그리고 아빠보다 효심이 지극하다면, 장차 금연에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

### 내 인생의 책들

인의협 편집국 최영아

#### 1)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원제 Starch solution. 존 맥두걸

올해 초 MBN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걷기, 한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무릎 관절염, 무지외반증, 오다리 등이 있는 사람들이 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해 지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이 프로그램의 이 회차 강추). 진통제, 수술이 아닌 걷기로 치료되는 것이 내겐 커다란 놀라움이었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패널중의 한 의사가 말하기를 “모두가 수십년 밥을 먹지만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누구나 걷지만 바르게 걷는 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 바른 영양학을 배울 수 있다.

#### 2)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황성수

교과서를 넘어서 고혈압의 생리, 원인, 치료방향을 이 책에서 배웠다. 10년만에 고혈압 치료의 목표혈압이 올라간 것은 이 책을 읽어보면 당연하다.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한다.

#### 3)다윗과 골리앗, 아웃라이어-말콤 글래드웰

말콤 글래드웰의 책들은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준다. 잘난이에게는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마이너에게는 꿈과 희망을 준다. 내게는 잠언같은 책들이다.

#### 4)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우츠키 류이치

존경하는 의사선생님인 조진수 선생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책. 생활지침, 진료지침으로 삼고 있다. 내가 만난 최강동안인 분은 채식에 화장품 바르지 않고 물로만 세수하는 사람이었다.

#### 5)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원제 Were You Born on the Wrong Continent?

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이 독일에서 체험한 '진짜 복지'를 통해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상반된 세계를 생생하게 비교하였다. 똑같이 상위 10퍼센트 안에 드는 중산층으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바버라의 열악한 현실과 유럽에서 태어난 이사벨의 여유로운 삶을 보여준다.-출판사 책소개에서 따옴. 이 책의 미덕은 유머러스하다는 것. 북유럽에 놀러가서 한 달 살아보면 이 책의 내용을 체득할 수 있다. :)

#### 6)탐욕의 시대-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원제 L'empire de la honte: 수치의 제국

8년간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한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의 '신흥 봉건제후들'이라 불리는 거대 다국적 민간 기업을 비롯해 IMF, IBRD, WTO 등 시장원리주의와 세계화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을 통렬하게 고발한다.

#### 7)추가로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 하수정

육식의 종말. 원제 Beyond Beef. 제레미 리프킨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 원제 Eat to Live. 조엘 펄먼

중금속 오염의 진실. 오모리 다카시

생활용품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나. 원제 How Everyday Products Make People Sick. 폴 D. 플랭크

# 안내

인의협 토론회

## 에볼라 관련 의료진 파견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 김대희(인의협 사무국장)

- 발제 - 1. 에볼라 병태 생리 : 채운태(한일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2. 아프리카의 취약한 의료체계 : 유서희(국경없는 의사회회원)  
 3. 한국의 에볼라 방역체계 : 김진용(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 토론

2014년 10월 29일(수) 오후 8시  
서울의대 의과대학관 5층 대회의실(혜화역 3번출구)

오시는  
길

